



현대화 꿈 구축하고 새 청사진 함께 그리자

2024년 전국 인대 정협 회의 특집

정부사업보고중의 따뜻한 정책들



취업창업 지도를 최적화하고 농촌 부민산업을 확장하며 '과학기술 현상제' 기제를 개선하고 교육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며 타지역 진로 결산을 실행하고 보완한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다양한 군체에 혜택을 주는 일련의 따뜻한 정책을 내놓았다. 어떤 것들이 당신과 관련이 있을까?

@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지도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 도시 신규 취업자수가 1,200만 명 이상에 달하게 한다.
▷ 청년취업 촉진 정책 조치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 령세기업 경영자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용자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킨다.

▷ 용자신용, 위험분담, 정보공유 등 부대조치를 최적화한다.
▷ 중소기업의 디지털 업무 기능을 위한 특별행동을 심도있게 전개한다.
▷ 중소기업의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 발전을 촉진한다.

@ 과학연구인원
더 많은 일류 과학기술 선도 인재와 혁신팀을 양성한다.

▷ 과학기술 평가, 과학기술 포상,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경비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 '과학기술 공모' 기제를 개선한다.
▷ 젊은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인다.
▷ 전복(颠覆)성 기술과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 교사
높은 수준의 전문화 교사 대오를 건설한다.

▷ 교육자 정신을 발양시킨다.
▷ 교육의 선도적 발전을 견지하고 교육의 현대화를 가속화한다.
▷ 의무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과 도농 일체화를 가속화한다.

@ 농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농촌 부민산업을 확대한다.

▷ 2차 토지 도급 만료후 30년간 전 성 범위내에서의 시범사업을 연장한다.

▷ 량곡 재배 농민의 소득 보장 기제를 개선한다.

▷ 농민공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로동관계 협상 및 조정 기제를 개선한다.

▷ 농촌 주택의 지진 방지 개조 강도를 강화하고 농촌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로인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인상한다.

▷ 도농 주민 기초양로금 월 최저기준을 20원 인상한다.
▷ 도농 사회구역의 양로서비스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한다.
▷ 로인 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실버(银发)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 진료환자
타지역 진료 결제를 실행하고 보완한다.

▷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 기준을 30원 인상시킨다.
▷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검사검진 결과 상호 인정을 추진한다.
▷ 급별(分级) 진료 추진에 착안하여 량질의 의료자원이 기층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 소아과, 로인의학, 정신위생, 의료간호 등 서비스 단점을 가속 보완한다.

@ 육아가정
다경로로 탁육서비스를 증가하여 공급한다.

▷ 출산휴가제도를 최적화한다.
▷ 경영주체의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기제를 완비한다.
▷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인민넷-조문판

전국인대 첫 기자회견 요점 정리!

3월 4일,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대회 해변인 루근검은 인대사업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의 질문에 답했다.

▷ 대회 폐막후 총리 기자회견 개최하지 않는다
루근검은 올해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는 폐막후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만약 특수 상황이 없다면 이번 전국인대 이후 몇년간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

▷ 중국은 전반적으로 국방 지출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유지
루근검은 최근 몇년 동안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특색 군사개혁의 요구에 적응하며 대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방 지출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 동시에 국방실력과 경제실력의 동시 향상을 촉진한다고 소개했다.

▷ 향항기본법 제 23 조 립법사업 전폭 지지

루근검은 향항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 수호 립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완수하는 것은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권을 수호하는 헌법적 책임을 리행하는 것이며 특별구정부가 기본법,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대의 결정 및 향항국가안전수호법 해당 규정의 법령의무를 리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표시했다.

▷ 1조원 국제재자항목 전부 하달 완료

루근검은 지난 10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6차 회의는 국무원에서 제출한 2023년 중앙예산 조정 계획을 심사 비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2023년 1조원의 국제재자항목을 전부 하달했고 지원항목은 1만 5,000여개인데 이는 재난구역 인민대중들의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했다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왕의 : 인민은 중국이야기의 주인공이다

3월 7일,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는 북경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외국기자가 어떻게 중국이야기를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지난 몇년간 중국 주재 외국기자들은 신주가족의 '우주 릴레이'에서 '분투자'호의 극한 잠수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막과 관리로부터 저탄소 생활에 이르기까지, 항주아시아경기대회에서 '귀주촌 BA'에 이르기까지 생동하고 생생한 중국이야기를 많이 보도했다. 당신들은 억만 중국인민이 중국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주었고 새시대 중국의 왕성한 생기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노력해준 기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이야기는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중공공산당의 이야기이다. 중공공산당은 백여년간 중국인민을 이끌고 단결시켜 완강히 투쟁하여 중국식 현대화 도로를 개척하고 인류력사상 전례없는 발전의 기적을 창조



3월 7일,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는 북경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문제에 대해 중외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신화넷

했다. 이는 중국이야기중 가장 눈부신 주제이다. 중국이야기는 결국 중국인민의 이야기이다. 인민은 중국이야기의 주인공이다. 14억 넘는 중국인민은 중공공산당의 령도하에 련이어 분투하면서 근면한 로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야기중 가장 멋진 한 페이지이다. 중국이야기는 중국과 세계가 서로 성공을 이룩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중국은 시종 자체 발전과 각국의 공동 발전을 련계시켜 지속적으로 개혁

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지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이야기중 가장 웅장한 서사이다.

중국이야기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인류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이다. 중국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각국이 자신의 국가 상황에 적합하여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지만 한다면 반드시 다채로운 세계 현대화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이야기를 들려주는 외국기자 친구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한 외국기자가 중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곳이라면서 중국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그의 업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의 사명이라고 말한 것을 보았다. 또 최근 몇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외국 왕홍'들이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고 공유하여 각국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외국 친구들이 활기차고 신선한 중국이야기, 중국과 각국이 손잡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여가는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환영한다. /신화넷

전국인대 대표 김은장 : 능동적 사법 리념 수립해야



김은장대표

"최근 몇년 동안 북건법원은 '공정 및 효율'이라는 업무 주제를 견지하고 능동적인 사법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여 대세를 위해 복무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업무를 취급했으며 재판업무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의

북건 실천을 지지하고 이에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 량회 기간 전국인대 대표이자 북건성고급인민법원 당조 서기 겸 원장인 김은장(조선족)이 밝혔다.

법치화 경영환경 최적화
"우리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은장은 북건법원은 능동적인 사법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법치의 새로운 동력을 추가했는지 작년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34 갈래 조치를 출범해 3,425개 기업을 위해 신용을 회복시켰으며 기업과 기업가들이 진정으로 사법의 강도와 온도를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북건법원은 혁신 주도 발전전략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전반 사수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 기업들이 '목을 조르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새시대 '풍고경험' 실천
김은장은 "우리는 비소송 분쟁 해결 기제를 항상 념두에 두고 갈등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결하고 맹아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건법원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기층에 내려가고 조사연구를 위해 기층에 내려가며 래신래방을 위해 기층에 내려가고 현장 사무를 위해 기층에 내려가' (四下基层) 업무제도와 새시대 '풍고경험'에 내포된 정신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계승발양하고 소송

과 조정에서 '조정'을 소송전으로 확장시켰다. 작년에 전 성 법원은 25만 7,600건의 소송전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재판업무의 질적 증대 촉진
북건은 디지털중국 건설의 사상적 발원지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디지털북건', '디지털법정' 건설에 깊이 융합되어 지혜사법 서비스 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김은장에 따르면 북건법원은 정보기술을 집합사건처리, 소송서비스 및 사법관리의 다양한 분야에 전면적으로 삼입하고 디지털 지적 기능을 강화했다. 동시에 사법 빅데이터 분석, 연구판단을 강화하여 '사법 데이터'를 '데이터사법'으로 변하게 했다. /인민넷-조문판

전국인대 대표 리운봉 : 빙설산업 위해 인재 기반 다져야



리운봉대표

금방 끝난 제 14기 전국동계운동회에서 흥룡강성대표단은 수많은 메

달을 획득했다. "이런 성적의 취득은 운동원과 코치들의 노력을 떠날 수 없고 정보장팀과 빙설종사자들의 지지를 떠날 수 없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흥룡강성 학강시체육운동항목훈련센터 고산스키 코치인 리운봉은 자부심에 넘쳐 말했다.
"3억명 빙설운동 참여"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빙설산업의 '눈덩이'가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 나라 빙설운동 인재의 시장 수요와 공급의 모순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육성 주기가 길고 성장 경로가 좁

은 것은 빙설운동 전문인재수가 적은 원인이다."라고 리운봉대표는 말했다.

20년 넘게 프로빙설선수로 생활하면서 리운봉은 빙설운동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기층 스키학교를 설립하여 전문팀에 인재를 수송하던 것을 전방위적인 스키 인재 양성으로 전반기라고 표시했다.

동시에 그는 빙설체육직업학원 혹은 기타 체육학교에 빙설전공을 설치하여 경영을 리해하고 관리를 잘하며 업무 능력이 강한 빙설전공 인

재를 양성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국가 빙설인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빙설운동 체육강국의 현실적 수요이자 빙설산업 발전을 추동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리운봉은 말했다.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학교와 기층에서는 빙설대오 인재 양성 의식을 수립하고 용인단위와 량호한 협력관계를 건립하여 량성 공급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리운봉은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전국인대 대표 김동호 : 농촌 양로서비스 부족점 보완해야



김동호대표

정부사업보고는 농촌 양로서비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강도를 높일

것을 제기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농촌 양로서비스 체계를 건전히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성 양로서비스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농촌 로인 식사보조와 호조서비스의 발전을 권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생보장 수준을 높이고 농촌 로인들의 절박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실제적인 행동이다.
현재 일부 농촌 로인들은 만성질환과 기능장애가 있어 부동한 모식의 양로서비스를 수요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

당지부 서기이며 상지시 어지벼재배전합작사 리사장인 김동호는 전사회적 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배경하에 농촌 양로서비스 면의 부족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하고 농촌 지역성 양로서비스센터를 다그쳐 건설하며 로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 음식, 기본의료보장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로인들에게 사교공간을 제공하여 로인들간의 상호 교류와 상호 협조를 촉진해야 한

다고 김동호는 인정했다.

그는 홀로 집에 남겨진 로인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가정의 양로 부담도 따라서 경감될 수 있고 자녀들도 더욱 안심하고 외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는 농촌 양로 수요의 체계적 해결 방안은 공급주체 증가, 자원 적합성 제고 등 방면으로부터 착수하여 점차 사회자본의 진출 통로를 열어주고 각 방면의 직책을 명확히 하며 각 방면의 령량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흥룡강신문넷